

45조 투자, 2만명 고용...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축

(2023년까지)

포스코 100대 개혁과제 발표

사업 확장보다 조직 효율성 제고
기업시민권 신설, 신성장부문 격상
인적쇄신 바탕 R&D 경쟁력 확보

최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열린 '위드 포스코(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에서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기업 시민'과 '통합 시너지'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다.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축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미드스트림 분야에서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의 LNG 도입 업무를 포스코대우로 일원화해 LNG 트레이딩을 육성하기로 했다. 광양의 LNG 터미널은 포스코에너지와 통합하고, 포스코에너지의 부생가스발전은 제철소의 발전사업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그룹 내 설계·감리·시설운영관리 등 건설분야의 중복·유사 사업들은 포스코건설이 흡수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포스코는 고부가 탄소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 음극재·전극봉의 원료가 되는 침상코크스 생산공장을 포스코켄텍에 신설하기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포스코 대치동 사옥.

했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7월 취임 당시 사업개편 방향으로 가장 먼저 공개했던 '양·음극재 사업 통합'과 관련한 세부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차전지 소재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해 고체 및 축형 제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양극재(포스코ESM)·음극재(포스코켄텍) 관련 회사 통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예정이다. 양·음극재 사업 관련, 포스코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20%, 매출액 17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키워 그룹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경영목표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신사업 부문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취임 당시에도 최 회장은 신성장 사업 부문을 이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CEO 및 사외이사와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시민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한다. 특히 외부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기업시민 전략 수립에 사회전반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강 부문'과 동급인 '신성장부문'으로 조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 같은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현금과 향후 5년간 벌어들일 자체 창출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45조원 투자'를 추진하고, 2만명 고용을 위한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공개된 최정우식 사업구조 개편안의 특징은 사업 영역 확장보다 조직 효율성 제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숫자상의 구체적인 경영목표로는 개혁과제 시행 5년 후인 2023년 매출액 85조·영업이익 7조4000억원, 2030년에는 매출액 100조·영업이익 13조원으로 잡았다. 또 전체이익을 100으로 봤을 때 철강·비철강·신성장의 수익 비중을 40:40:20으로 설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실전으로 추진하고, 조직개편이

나 제도개선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라며 "또한 각 분야의 개혁과제는 임원급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CEO가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빠짐없이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정우호' 4분기부터 경영능력 검증

최정우 회장의 경영 능력은 4분기부터 적용된다. 포스코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이 같은 성적은 최근 취임한 최 회장이 이끌어 냈다고 보기 힘들다.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이 사실상 최 회장의 경영능력을 검증받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취임 이후 100일간 포스코를 변화하는데 주력했다. 향후 5년간 45조원을 투자하고 2만명을 고용하며, 오는 2023년까지 ▲철강 사업 고도화 ▲신(新) 성장 사업 발굴 ▲친환경에너지·인프라 사업 육성에 집중했다. 인적 쇄신을 통해 회사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 한 것이다.

이번에 최 회장이 내놓은 포스코 개혁안은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장기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용기 종류·크기 상관없이 조리 가능”

웅진렌탈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출시

웅진렌탈은 조리용기의 종류, 크기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웅진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분할 플렉스존 인덕션과 라디언트 하이라이트 1구를 적용해 조리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플렉스존 인덕션은 2개 화구를 각각 따로 사용하거나 식재료의 양과 부피가 큰 경우 2개 화구를 합쳐 대형 화구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바비큐나 구이에 적합한 넓은 그릴이나 큰 전골 냄비를 활용한 요리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또, 터보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의 화구에 소비전력을 집중시켜 더 빨리 가열해줘 조리시간을 줄여준다.

모든 조리 용기 사용이 가능한 라디언트 하이라이트는 용기 크기에 따라 가열 범위를 선택하는 듀얼버너 방식을 채용



웅진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했다. 작은 용기 사용 시 안쪽 화구만 작동해 열 손실을 최소화한 조리, 큰 용기 사용 시에는 바깥쪽 화구를 동시에 점화해 더욱 강력한 화력으로 조리한다. EGO 사 하이라이트 발열체를 사용해 3~5초만에 최대 560도 순간 가열이 가능하며, 음식 고유의 맛과 영양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레인지의 모양을 본떠 직관적인 화구 조작 버튼과 간편하게 온도를 조절하는 터치 슬라이드 방식을 적용해 편리함도 더했다. 출시가격은 119만원으로 일 시불로만 판매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 南北공동 ‘금강산관광 20주년’ 행사 추진

현대그룹이 오는 18일 금강산 현지에서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금강산 관광선 '현대금강호'가 출항한 지 20년이 되는 오는 18일과 금강산 고성항에 도착한 19일에 맞춰 1박 2일 일정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 초청인사 70여명과 북측 관계자 80여명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념식·축하연회 등의 식순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현 회장은 지난 8월 남평인 고(故) 정몽헌 전 회장의 15주기 행사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 방북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지난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관광 개시 당일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방북 성사로 남북 양측이 현대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게 될 지도 관심사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금강산관광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1989년 북측과 금강산 공동개발 협정서를 체결하고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소떼방북'하며 물꼬를 텄다.

이후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1998년 10월 29일 북한의 아태 김용순 위원장과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맺은 후, 그해 11월 18일 동해항에서 실항민과 관광객 등 1400여 명을 실은 현대금강호가 출항했다.

2003년에는 육로 관광이 시작됐고 관광지역도 초기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의 외금강코스에서 2007년 내금강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운영됐다.

2008년 7월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95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온 것으로 현대그룹은 집계했다.

/정연우기자 yw964@

KT '기가지니 명상 서비스' 출시

연말까지 콘텐츠 무료 제공

기가지니가 거실을 명상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KT는 6일 '기가지니 명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명상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기업형 명상 솔루션을 개발한 무진어소시에이츠에서 만든 '마음챙김' 앱 콘텐츠를 기가지니로 옮겨온 것이다.

기가지니에 '명상 실행해줘'라고 말하면 400여개 명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나 좋아하는 명상가, 명상 사운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가지니는 올해 연말까지 명상 콘텐츠



KT는 기가지니 명상 서비스를 출시하고 연말까지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KT

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11월 말까지 3일 이상 명상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는 추천을 통해 푸진한 선물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대우조선해양, 2.7억 달러 규모 VLCC 수주

1척 확정, 2척은 올해안 발주 확정
생산성·수익성 향상 긍정적 영향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한터그룹 산하 한터탱크즈로부터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3척을 약 2억7300만달러에 계약 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1척에 대해서는 확정분이며, 나머지 2척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발주를 확정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원유운반선은 길이 336미터, 너비 60미터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수주에 성공한 초대형원유운반선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와 사양을 적용해 반복 건조 효과가 극대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원유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수주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클락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발주된 초대형원유운반선 41척 중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은 18척을 수주해 전세계 발주량의 44%를 가져왔다.

특히 클락스 신조선가 기준으로 2016년 6월 적당 초대형원유운반선 가격이 90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 27개월만인 지난 8월 적당 가격 9000만 달러를 회복했다. 이번 계약은 신조선가 회복 이후 적당 가격이 9000만 달러를 넘는 첫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우기자 yw964@



지난 2일9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오른쪽)과 한터그룹 대주주인 아네 프레데리치씨가 초대형원유운반선 건조계약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